

2023학년도 언어능력평가 출제 의도 및 예시 답안

[문제 1] (가)와 (나)를 요약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와 (라)의 작품을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1,000자, 50점)

출제 의도 및 평가 주안점

1. (가)와 (나)를 적절히 요약하고 있는가.
2.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3. (가)와 (나)의 관점을 (다)와 (라)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4. (다)와 (라)의 작품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가.
5.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예시 답안

개념미술과 참여예술은 모두 전통적인 미술의 형식과 방법을 따르지 않는 예술사조로서 뒤샹의 작업을 원류로 하며, 특히 미술 작품의 의미와 사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개념미술이 미술의 창작 과정에서 작가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중시하며 미술가의 역할에 대해 고심했다면, 참여예술은 관람자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며 작가와 관람자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한 개념미술은 작가의 언어적, 철학적 개념만으로도 작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참여예술은 경험적이고 참여적인 관계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긴다.

(다)의 경우 개념미술적 경향을 지닌 작품으로서 실제 의자와 사진, 사전적 정의만이 전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미술가의 창작물과는 다르다. 작가인 조셉 코수스는 이 작품을 통해 창작 대상의 존재 가치, 재현의 의미, 그리고 재현의 가치에 대해 묻고 있다. (라)의 경우 참여예술적 경향을 지닌 작품으로서 미술가가 제작한 포스터가 존재하지만, 이 작품의 의미는 미술관이 아니라 관람자들이 작품을 직접 가지고 가면서 시작된다. 토레스는 관람자의 참여를 통해 현대 사회의 총기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다)와 (라) 모두 의미와 개념을 중시하지만, (다)는 작품을 기획한 작가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반면, (라)는 관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작품이 사회적 문제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념미술과 참여예술은 모두 미술의 전통적인 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다)는 재현의 의미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습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있다. 하지만 (라)는 (다)에 비해 관람자가 작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에서 더 큰 예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991자)

[문제 2] (가)~(다)를 읽고 다음 조건을 반영하여 한 편의 글을 작성하시오.
(1,000자, 50점)

출제 의도 및 평가 주안점

1. (가)의 갈등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는가.
2. (가)의 인물 사이에 나타난 생각의 차이를 적절히 비교, 대조하고 있는가.
3. (다)의 관점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는가.
4. (다)의 관점을 (가)와 (나)의 특정 사건에 적절히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5. (다)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와 (나)의 의미를 해석하고 특정 구절에 적절히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예시 답안

(가)에서 ‘나’는 사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마지막 기도를 위해 들른 신부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둘 사이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면회를 거절한 것이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죄는 인간들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사제는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믿으며, 인간의 심판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 신부는 사형수인 ‘나’의 처지를 가엾게 생각하는 반면, ‘나’는 사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에 의하면 인간의 삶이 부조리한 이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고 죽기 때문이다. 즉 부조리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인간의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에 가득차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가)의 ‘사형’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부조리한 인간의 삶을 의미한다. ‘피르소’가 모든 사람들도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모두 원치 않는 죽음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나)의 ‘형벌’은 우연히 태어나게 된 인간의 처지, 다시 말해 부조리한 삶 자체를 의미한다. 완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지프처럼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실존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부조리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연히 주어진 삶이지만, 이 삶을 자신의 의지로 살아 나가는 태도야말로 부조리를 극복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나’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응시하면서 삶과 죽음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시지프’가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우연히 주어진 형벌을 자신의 의지로 수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998자)